

편도암의 수술적 접근방법과 재건방법에 따른 치료 결과 분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최혁기* · 선동일 · 조광재 · 방충일 · 조승호 · 김민식

목 적 : 편도암의 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의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중 저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기준으로 하여 수술의 방법과, 그 결과, 재건 방법, 슬하 기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4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강남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편도의 악성종양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32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했다. T병기는 T1 5예, T2 19예, T3 3예, T4 5예이었고, N병기에서 N0 8예, N1 7예, N2 15예, N3 2예였다. 수술적 접근 방법에 따른 재발율과 절제연의 결과, 구강식이와 기관절개관의 제거시기, 재건 방법, 및 평균 생존기간을 살펴보고, N병기에 따른 경부청소술의 시행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 과 : 외측인두절개술 17예 중 절제연이 양성인 경우

는 2예(11.8%)였고, 이중 원발병소의 재발은 1예였다. 정중하악골 절개 10예 중 3예(30%)에서, 구강내 절제 5예 중 1예에서 절제연이 양성이었다. 기관절개관 제거시기, 경구식이 시작시기는 각각 하악절개술 25.3일, 12.9일, 외측인두절개술 19.8일, 11.9일이었다. 재건방법은 요전박 유리피판술 20예, 대흉근피판술 7예, 일차 봉합이 5예였다. 접근방법 및 재건방법에 따른 평균생존기간에 차이는 없었다($p < 0.05$). 경부청소술의 결과 N0였던 3예에서 병리조직학적 병기가 N1 1예, N2 2예로 나왔으며, 국소 재발은 3예였다.

결 론 : 편도암의 수술시 외측인두절개술은 충분한 시야를 제공하면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며, 수술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피판을 이용한 재건이 우수한 재건 방법으로 사료된다.